

터키의 국가 현황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

李哲元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의 추구를 뒷받침할 政策研究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7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1992년 1월 地域研究를 주요 업무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현재 30~40명의 박사급 연구진을 포함하여 70여 명의 연구원이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APEC 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거인, 동북아경제협력 및 통일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쳐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國際巨視金融室, 貿易投資政策室(DDA연구팀, FTA연구팀, APEC연구팀), 세계지역연구센터(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東北亞경제협력센터,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北京事務所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를 두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유관부처에 제공되며, 장·단기 研究報告書, 월간 『KIEP세계경제』,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새로운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연구성과는 본 연구원 KIEP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ep.go.kr>)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질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대외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정책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院長 李 景 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02) 3460-1114 / FAX : (02) 3460-1144, 1199

URL: <http://www.kiep.go.kr>

터키의 국가 현황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

李哲元

국문요약

터키의 정치체제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많은 정당이 난립하고 정파간 갈등과 부패 및 방만한 경제운용 등으로 정치상황이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 과거 2~3개 정당의 연정에 의해 정권이 유지되던 때에 비해 에르도간 現 정권은 최근 지지율과 의회장악력 등으로 미루어 보아 2007년 차기 총선 때까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이 이슬람 정당을 표방할 경우 세속주의를 유지하려는 군부와의 마찰 가능성과 AKP내 파벌간 갈등으로 인한 정책추진력 약화, 쿠르드족의 분리운동 등의 우려요인들도 잠재해 있다.

터키경제는 최근 고성장 지속, 환율절상과 이에 따른 금리하락, 물가상승률 둔화 등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채무 부담이 큰 상황이며, 많은 개혁과제를 안고 있다. 관료주의에 의해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과도한 수수료 및 부대비용 등으로 낭비요인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 환위험, 고금리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과 고율의 법인세, 그리고 비효율적인 전력관리로 인한 비싼 전력요금 등은 터키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장애요인들이다.

섬유류의 수입절차 강화와 함께 최근 터키 세관당국은 섬유류 수입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한국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관세동맹 체결로 터키는 EU 非회원국과의 어떠한 경제협력도 EU와 논의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사실 역시 터키가 한국과의 교역 및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6년부터 EU와 터키간 관세동맹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 적용되

는 관세율과 EU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큰 격차를 보여 우리의 對터키 수출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EU산 제품의 경우에는 CE 인증만으로 수입이 가능한 반면, 한국과 같은 非EU산 제품은 CE 인증과 함께 터키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TSE 인증을 취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한바, 이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에 터키가 참전하는 등 지난 50년간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과 터키간의 경제협력 현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에는 분명하다. 양국의 경제규모 및 지리적 여건 등 대내외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양국은 상당한 경제협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기업의 연구개발 경험 및 자본력과 터키의 전문 기술인력 및 풍부한 노동력간의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개발과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할 경우 양국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생산기술과 첨단설비 운용기술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터키기업과 적극적인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경우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양국간 경제협력방안의 일환으로 韓·터키 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지면 저렴한 비용으로 위험을 분산하면서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지식의 원활한 교환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양국간 경제협력 잠재력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韓·터키 경제협력의 증진은 기업간 전략적 제휴에서부터 정부간 협력체제 구축에 이르기까지 범위와 내용 면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양국은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술제휴와 공동 기술개발, 더 나아가서는 공동 생산과 제3국 공동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양국 기업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양국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적극 후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EU시장 우회진출과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터키는 자본 및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양국의 경험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은 상호간 시장개방뿐 아니라 비용을 분담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인접 시장에 공동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면서 교역과 투자 및 기술협력을 확대하여야 하며, 세계시장에서 견고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 양국 기업간 기술제휴를 적극 유도하며, 중장기적으로 EU시장 우회진출과 중동 및 중앙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공동 생산체제를 터키에 구축토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韓·터키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이로 하여금 양국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양국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고, 한국기업의 효율적인 터키 진출을 지원토록 해야 한다. 국내기업은 기술역량과 자원의 보완성이 강한 터키기업을 제휴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기술제휴 초기단계에서 정부기관 혹은 韓·터키 경제협력 주관기관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이 필요하다.

韓·터키 경제협력의 유망부문으로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통신, 이동통신기기, 철강, 섬유, 화학, 건설, 에너지, 방산, 운송, 농산물 등을 들 수 있다. 同 부문에서 양국 기업은 기술제휴, 합작생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제3국 시장 진출을 공동 모색하며, 정부 주도형 기술개발에 공동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차례

국문요약	5
제1장 터키의 정치·경제 현황 및 전망	13
1. 최근 정치 현황	13
가. 국내정치 / 13	
나. 대외관계 / 15	
2. 최근 경제 현황	17
가. 개요 / 17	
나.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원인 / 18	
다.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 26	
3. 주요 경제현안	29
가. 터키의 EU 가입 / 29	
나. 리라화의 리디노미네이션 / 32	
다. 경상수지 적자 심화 / 35	
제2장 韓·터키 경제협력 현황	38
1. 개요	38
2. 교역	38
가. 교역추이 / 38	
나. 주요 교역품목 / 39	
3. 투자	41
4. 주요 경제협력 현안	43
제3장 韓·터키 경제협력 증진방안	46
1. 양국간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46
2. 경제협력 증진방안	47

- 가. 韓·터키 경제협력의 기본방향 / 47
- 나. 韓·터키 경제협력 증진방안 / 48
- 다. 경제협력 유망부문 / 50

참고문헌 54

부록 56

1. 터키 개황 56

2. 터키의 수도이전 사례 59

Executive Summary 63

표 차례

표 1-1. 터키의 최근 경제동향	27
표 1-2. 터키의 향후 경제전망	28
표 1-3. 터키의 부문별 수출입 현황	35
표 1-4. 터키의 국별 수출입 현황	36
표 1-5. 터키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37
표 2-1. 韓·터키 업종별 수출입 내역	40
표 2-2. 한국의 對터키 해외투자	41
부표 1-1. 수도이전 전후 터키의 경제상황 변화	60
부표 1-2. 터키의 1인당 GDP와 인구 추이	60

그림 차례

그림 1-1. 금융위기 당시 터키의 금융시장 추이	22
그림 1-2. 터키 리라화의 환율변동 추이	33
그림 2-1. 韓·터키 연도별 수출입 추이	39

글상자 차례

글상자 1-1. 터키의 주요 인사	14
글상자 2-1. 한국기업의 터키 현지법인	42

제1장 터키의 정치·경제 현황 및 전망

1. 최근 정치 현황

가. 국내정치

터키는 전체 국민의 99%가 이슬람 수니파인 이슬람국가이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세속주의 원칙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1923년 터키공화국 출범 당시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1996년 집권에 성공한 이슬람계의 복지당(RP)은 이러한 세속주의를 일탈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체되었다. 그 후 前RP 소속의원들을 중심으로 창당된 미덕당(FP)도 반세속주의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2001년 6월에 해체되었다.

이러한 세속주의가 확립되어 있어 정치체제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많은 정당이 난립하고 정파간 갈등과 부패 및 방만한 경제운용 등으로 정치 상황이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다. 군과 언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세속주의 원칙으로 터키는 중동국가 가운데 비교적 민주주의체제가 잘 확립되어 있고, 이슬람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NATO 회원국이다. 그러나 많은 정당이 난립하고 있어 집권기간이 비교적 짧고 정세변화가 매우 심한 편이며, 이러한 정치불안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2002년 11월 총선에서 정의개발당(AKP)이 34.29%의 득표로 전체 550석 가운데 363석을 얻는 압승을 거두고 단독으로 집권에 성공하였다. AKP 소속 중진 의원 대부분이 이슬람 정당을 지향하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체된 RP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최근 AKP는 이슬람 원리에 치우치지 않고 親서

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AKP 당수이자 총리인 에르도간은 EU 가입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과거 2~3개 정당의 연정에 의해 정권이 유지되던 때에 비해 에르도간 現 정권은 2007년 차기 총선 때까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KP는 2004년 5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으며, 최근에는 EU로부터 가입협상 개시일자를 받아내는 등 지지층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반면 지난 총선에서 19.38%를 득표하여 유일하게 원내에 진출한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은 총 178석으로 전체 의석의 1/3에도 미치지 못해 의회장악력에 한계가 있다.

글상자 1-1. 터키의 주요 인사

□ Ahmet Necdet Sezer(대통령)

- 2000년 5월 의회에서 간선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됨.
- 헌법재판소 소장 출신, 저명한 정치가와 군부 출신이 아닌 터키 최초의 대통령
- 정치개혁과 인권신장 강조, 정부의 관료주의와 부패 척결에 적극적
- UN 지지 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표명으로 폭넓은 국민 지지층 확보
- 세속주의 원칙하에 이슬람 정당인 AKP 정권을 효과적으로 견제
- 정당정치 경험부족, 의회 영향력 미비 등의 약점을 높은 대중적 인기로 만회

□ Recep Tayyip Erdogan(총리)

- 1994~98년 동안 이스탄불 시장의 성공적 역임으로 지지층 결집
- 1998년 종교적 선동 혐의로 4개월간 수감되면서 이스탄불 시장직 박탈
- 세속주의 위반혐의로 해체된 RP, FP 출신으로 AKP 결성
- AKP를 이슬람 정당의 색채를 줄이고 자유중도우파 정당으로 운영
- 수감 전력으로 2002년 AKP 총선 승리 이후에도 의원직이 없어 막후 정치
- 선거법 개정 이후 2003년 3월 보궐선거에서 의원직을 획득하여 총리직 본격 수행
- 이라크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을 지원하지도 거부하지도 않는 중도 행보 유지
- 키프로스 문제 해결과 터키의 EU 가입 정책에 적극적

글상자 1-1. 계속

□ Abdullah Gul(부총리 겸 외무장관)

- 에르도간 총리의 막후 정치기간인 2002년 11월에서 2003년 3월까지 총리직 수행
- 공학도 출신으로 1983~91년 동안 이슬람개발은행(IDB)의 경제학자로 근무
- 1995년 RP 소속으로 의회에 진출, 1996~97년 국무부 장관과 정부대변인 역임
- 에르도간에 이어 AKP의 2인자, 터키의 EU 가입 정책 추진 책임자

하지만 AKP가 이슬람정당을 표방할 경우 세속주의를 유지하려는 군부와 의 마찰 가능성과 AKP내 파벌간 갈등으로 인한 정책추진력 약화, 쿠르드족의 분리운동 등의 우려요인들도 잠재해 있다. AKP내 이슬람 정당을 표방하려는 파벌과 세속주의 원칙을 준수하려는 파벌들이 혼재해 있다. 쿠르드족은 주로 터키와 이라크의 국경지대에 거주하고 있는데, 특히 터키에 가장 많은 약 3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의 분리운동 움직임에 터키정부는 항상 긴장하고 있다.¹⁾

나. 대외관계

미국, 유럽 등 서방세계는 물론 중동,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국가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터키는 2003년 미국의 對이라크戰 개전으로 미국과 중동국가들은 물론 EU와의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한 바 있다. 미국은 개전 직전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하며 터키내 미군 주둔의 허용을 요청하였으며, 미군 주둔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터키는 영공 통과를 허용하고 미군의 병참을 지원하는 선에서 미국의 對

1) 2005년 2월 이라크 총선에서 쿠르드족은 27.3%를 득표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라크戰을 지원하였다. 이로 인해 터키는 이슬람 형제국가들과의 관계는 물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였던 EU내 독일, 프랑스와의 관계도 일시적으로 냉각되는 외교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터키는 미군의 對이라크戰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 미국의 경제지원, △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에의 참여 및 새로 구성될 이라크정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 터키의 EU 가입과 쿠르드족 문제해결에 대한 미국의 협조 등을 추구하였다. 2000년부터 여러 차례의 금융위기로 IMF 체제하에 있는 터키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지원이 절실하였으며,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참여와 이라크 新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도 터키 경제회생에 매우 중요하였다. 유럽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터키는 오래 전부터 EU 가입을 희망해왔으나 기독교 중심의 EU는 회교국가 터키를 계속 외면하였으며, 최근 미국이 터키의 EU 가입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터키와 이라크 접경지역에서 미국의 지지하에 쿠르드족이 자치권을 획득할 경우,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및 영토 측면에서 터키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였다.

반면 터키는 미군을 지원함으로써 △ 국민정서에 역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 △ 유럽과 아랍세계를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 포기, △ EU측의 부정적 시선 등의 부담을 떠안았다. 터키 국민의 90% 이상이 형제국인 이라크를 미국이 공격하는 데 그 기지를 내어주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였다. 지정학적 측면과 함께 터키는 親서방노선을 지속하고 있고 아랍권에서도 형제국으로서 터키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바,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한쪽을 잃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프랑스, 독일 등 EU의 핵심세력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강력히 반대하였는바, NATO내에서 일방적으로 미국에 협조함으로써 터키의 EU 가입 여부를 손에 쥐고 있는 이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었다.

한편 터키의 EU 가입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은 터키의 키프로스 승인문제였다. 이는 키프로스를 사이에 둔 터키와 그리스 양국간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역사적인 분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터키계 주민과 그리스계 주민의 유혈충돌이 잦았던 키프로스에서 1974년 그리스계 장교 주도의 쿠데타가 발생하자, 터키군이 터키계 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키프로스를 침공, 북부 영토 37%를 점령하였고, 1983년에는 북키프로스공화국이 수립됨으로써 키프로스는 터키계의 북키프로스와 그리스계의 남키프로스로 분단되었다. 남·북 키프로스를 통합하여 EU에 동시 가입시키기 위하여 코피 아난(Kofi Annan) UN 사무총장이 통합방안을 제시, 2004년 4월 남북 별도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북키프로스는 64.9%가 통합에 찬성한 반면, 남키프로스는 75.8%가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통합안이 무산되어 남키프로스만이 2004년 5월 EU에 단독 가입하였다. 현재 남쪽 키프로스만이 국제적으로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고, 북키프로스는 터키에 의해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터키가 EU에 단독 가입한 그리스계의 남키프로스를 승인하게 되면 이는 터키의 키프로스 침공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터키로서는 남키프로스를 승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2. 최근 경제 현황

가. 개요

1994년 초 금융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한 터키경제는 1995~97년 동안 연간 7~8%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지나친 확대재정·통화정책의 시행으로 지속적인 고인플레이션이 유발되었고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高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심화를 극복하기 위해 터키정부는 1998년 7월부터 IMF의 Staff Monitored Program을 수용, 3년간에 걸친 경제구조조정 및 안정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안정화정책에 힘입어 1998년 경제성장률이 3.1%로 낮아지고 물가가 안정되었으며, 재정적자도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199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연간 84.6%를 기록하였고, GDP 대비 재정적자도 7.1%에 달하였다.²⁾

다소 안정을 찾아가던 터키경제는 1999년 8월 유례없는 대지진으로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서방의 지원에 의한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으로 2000년 들어 경기가 급격히 회복되었다. 대지진의 여파로 1999년 터키 경제는 -4.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에는 7.3%의 고성장을 달성하였다. 2000년 말 유동성위기 이전까지 터키경제는 낮은 이자율정책 지속, 지진 피해복구 건설공사 개시, 수출경기 및 관광경기 회복 등으로 고도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나.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원인

1)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1994년 초의 금융위기를 논외로 하면 터키의 금융위기는 3차에 걸친 위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차 위기는 10개의 부실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2000년 11월 중순부터 IMF의 지원방침이 발표된 그해 12월 초순까지이다. 그리고 2차 위기는 금융부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불화가 알려진 2001년 2월 말부터 IMF의 對터키 추가지원방침이 정해진 5월 초까지이다. 마지막으로 3차 위기는 터키의 정치불안과 개혁추진의지에 대한 신뢰도 하

2) Deutsche Bank(2000), *Economic & Financial Outlook- Eastern Europe*, October 13, No. 1.

락으로 2001년 6월 말 IMF의 對터키 금융지원 집행이 연기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가) 1차 위기

2000년 11월 중순 이후 1차 위기 때부터 극도의 불안양상을 나타낸 터키의 금융시장은 2000년 12월 6일 IMF의 구체금융지원 발표 이후 안정을 되찾는 듯하였다. 2000년 11월 초 30%대에 머물러 있던 3개월물 은행간 금리는 11월 중순 40%대를 초과한 이후, 11월 말에는 60%에 이르렀다.³⁾ 터키의 주가지수 ISE100은 2000년 11월 초에 1만 4천대에서 움직였으나, 11월 중순 이후 급락하여 12월 4일에는 7,330을 기록한 이후, IMF의 구체금융지원 발표에 힘입어 반등하였다. 1차 위기 당시 환율제도가 복수통화바스켓에 페그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⁴⁾

이와 같은 유동성위기로 터키정부는 2000년 11월 30일 IMF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IMF는 그해 12월 6일 이를 받아들여 터키에 총 100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이 가운데 약 75억 달러에 해당하는 57억 8,400만SDR은 보완준비금제도(Supplemental Reserve Facility)에 의해 지원하는 것이었다. 나머지 약 29억 달러에 해당하는 22억 2,700만SDR은 1999년 12월에 지원키로 했다가 중단된 대기성차관(Stand-by arrangement)의 지원을 재개한 것이었다.⁵⁾

지난 1999년 12월 22일 IMF는 약 37억 달러에 해당하는 28억 9,200만SDR을 대기성차관으로 3년간에 걸쳐 터키에 지원키로 한 바 있다. 당시 터키정

3) 특히 1일물 콜금리는 11월 30일 400%에서 12월 1일 700%로 급등하였는데, 장중 한때 1,700%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IMF의 금융지원 발표 이후 안정되었다.

4) 그러나 달러화에 대한 수요폭증으로부터 리라화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2000년 11월 말경 1주일 동안 약 6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소진하는 등 중앙은행의 외환개입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5) IMF(2000), *News Brief No. 00/113*, December 6.

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IMF의 안정화프로그램 이행을 조건으로 同 차관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쳐 약 8억 달러를 지원받은 뒤, 2000년 11월 터키 중앙은행이 IMF와 약속한 통화공급량을 초과하면서 지원이 중단되었다.⁶⁾

나) 2차 위기

2000년 말 유동성위기 이후 IMF의 금융지원 발표로 안정을 되찾았던 터키의 금융시장이 2001년 2월 말 들어 정치적 불안,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 등으로 다시 극도의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2001년 2월 하순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터키의 3개월물 은행간 금리는 3월 21일 94.5%까지 치솟았으며, 콜금리는 2월 21일 4,000%를 초과하기에 이르렀다. 2001년 2월 19일 대통령과 총리간 불화가 알려진 이후 20~21일 이틀간 주가지수는 무려 63%나 폭락하여 7,181을 기록한 뒤, 여러 차례 급등락을 거듭하다가 3월 29일에는 연간최저치인 7,160을 기록하였다. 2001년 2월 22일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이후 리라貨는 2일 만에 36% 절하되어 달러당 108만 8,330리라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에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하여 4월 10일에는 129만 7,500리라에 달하였다.⁷⁾

이러한 2차 위기는 2001년 5월 초순 들어 IMF의 對터키 추가지원이 확실 시되면서 진정되기 시작하였는데, 2001년 5월 15일 IMF는 터키에 3년 만기 대기성차관 64억SDR(약 80억 달러) 추가지원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이후 IMF가 터키에 지원키로 한 총규모는 150억SDR(약 19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2001년 5월 15일까지 39억SDR(약 49억 달러)이 이미

6) IMF(2000), *News Brief No. 00/107*, November 26.

7) 정치불안으로 터키의 2차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리라貨에 대한 평가절하압력이 거세지면서 터키 중앙은행은 복수통화바스켓에 페그되어 있는 환율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다.

터키에 지원되었다. 추가로 지원키로 한 64억SDR에서 약 30억SDR(약 38억 달러)은 즉각적으로 지원하였다. 나머지는 6월 25일과 7월 25일 사이에 터키의 구조조정 중간평가와 함께 12억SDR(약 15억 달러), 그리고 9월 20일과 11월 15일 사이에 구조조정프로그램의 완료에 대한 평가와 함께 24억SDR(약 30억 달러)이 각각 구조조정성과에 따라 지원되었다.

다) 3차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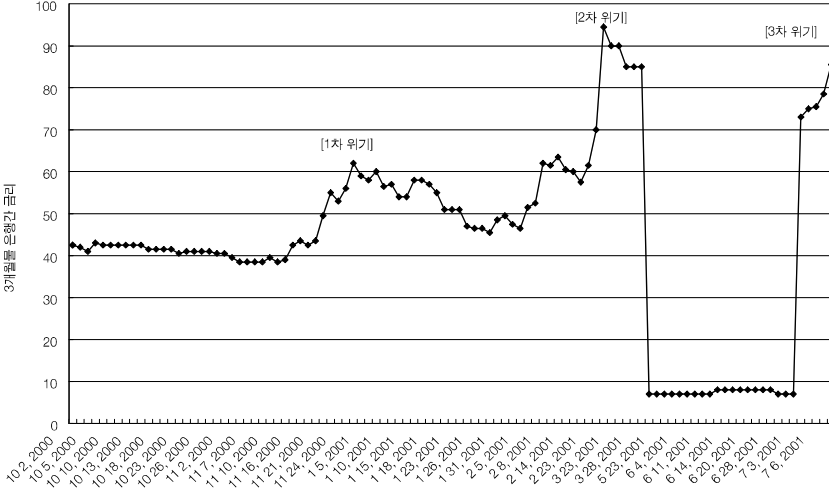
IMF 추가금융지원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터키의 금융시장은 2001년 6월 25일로 예정된 15억 달러에 상당하는 IMF의 對터키 지원금 집행을 위한 검토회의가 연기되면서 다시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국영전화통신회사의 민영화 추진할 이사회 구성에 대한 터키정부와 IMF간 의견대립이 검토회의 연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또한 민영화 추진 이사회에 민간전문가들을 대폭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르비스 경제장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통신장관이 소속정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 개혁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급격히 약화되었다.⁸⁾

이러한 터키의 정치불안과 개혁추진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2001년 6월 말 IMF의 對터키 금융지원 집행이 연기되면서부터 시작된 터키 금융시장의 불안양상은 IMF의 지원재개 발표 이후에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환율은 이미 2001년 6월 25일 달러당 130만 6천 리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7월 17일에는 145만 100리라에 달하였다. 2001년 5월 8일 1만 2,728까지 회복되었던 터키의 주가지수는 6월 하순부터 급락하여 7월 17일에는 8,689에 머물렀다. 약 2개월간 7~8%에서 안정되었던 3개월물 은행간 금리는 7월 들어 다시 수직상승하여 7월 9일에는 85.5%에 달하였다.

8) *Financial Times*(2001), "Turkey's ambitions on economic reform face a field test", July 19.

그림 1-1. 금융위기 당시 터키의 금융시장 추이

a) 단기금리



b) 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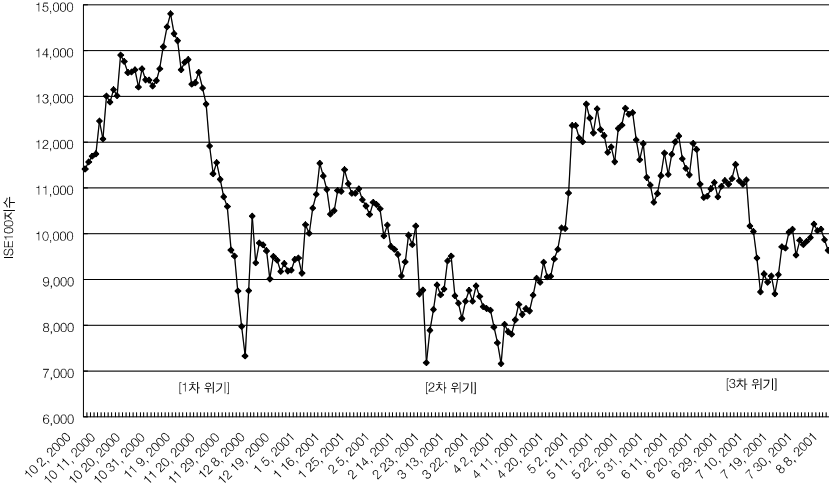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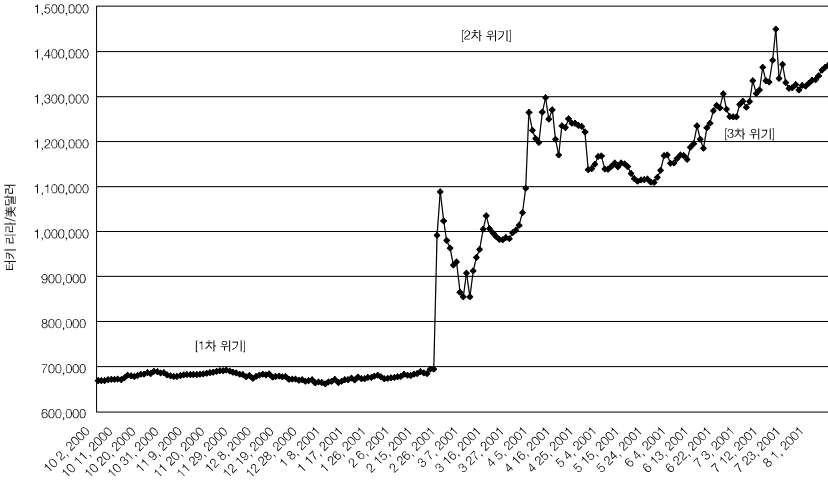


그림 1-1. 계속

c) 환율



자료: Bloomberg Service

이와 같은 터키의 금융시장불안은 IMF가 지원재개를 발표한 뒤에도 터키정부의 정책신뢰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S&P의 신용등급하향조정 소식이 알려져 여전히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터키정부는 2001년 7월 6일 부실은행의 영업정지를 발표한 이후 7월 10일에는 전력 등 에너지 부문에 대한 국가독점 포기, 국영 전화통신회사 민영화를 위한 이사회 재구성 등 IMF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키로 하였다. 이에 2001년 7월 12일 IMF는 15억 달러의 구제금융 집행을 재개하기로 하였으며, World Bank도 17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재개키로 하였다. 그러나 7월 11일 금융시장이 마감된 이후 S&P가 터키에 대한 장기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조정한 사실이 그 다음날 장부터 반영되어 금융시장불안이 지속되었다.

2) 금융위기의 원인

가) 금융부문의 부실

1994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좀처럼 취약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부문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터키의 금융부문 부실채권 정리에는 2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차 위기 이후 예금인출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은행예금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포함하면 금융부문 부실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차 위기 이후 극심한 금리변동과 거래기업 도산으로 금융부문의 부실채권은 더욱 증가하였다.⁹⁾ 2차 위기 이후 2개의 민간은행이 추가로 예금보험기금(Savings Deposit Insurance Fund: SDIF)에 편입됨으로써 SDIF의 관리하에 청산, 합병, 해외매각 등의 과정을 거쳐 구조조정이 될 은행은 모두 13개에 달하였다.¹⁰⁾

1차 및 2차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계기는 정책의 투명성과 정치불안이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터키 금융부문의 부실이었다. 1차 위기는 부실이 심화된 10개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투명성이 문제가 되어 촉발되었다. 2차 위기도 부실은행에 대한 정부 지원시 부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총리간 불화가 불거진 것이다.

나) 개혁의 지연

터키는 IMF 체제하의 안정화정책은 비교적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나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설정한 금융구조조정과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은 지지부

9) 지난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리라화의 가치폭락으로 은행의 자산가치가 크게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터키의 금융부문 부실은 실제로 더욱 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0)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01), "Foreign banks seek local partners", *EIU viewswire*, July 16.

진하였다. 터키정부는 1998년 7월부터 IMF의 Staff Monitored Program을 수용, 3년간에 걸친 경제구조조정 및 안정화정책을 시행하였고, 1999년 말 터키정부는 IMF의 안정화프로그램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안정화정책이 성과를 보일 무렵, 터키의 구조개혁정책은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IMF의 지원금이 중단되고 다시 경제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거듭되었다.

3차 금융위기도 터키경제의 개혁이 또다시 지연될 것을 우려한 외국인투자자들이 터키 금융시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국영전화통신회사의 민영화를 위한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부가 7명 모두를 비전문가 정부인사로 임명함에 따라 IMF가 이를 지적하였으나, 터키정부가 지나친 간섭이라고 크게 반발하였다. 국영전화통신회사 Turk Telecom의 관할권은 당시 집권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3개 정당 가운데 하나인 민족운동당(National Action Party: MHP)이 가지고 있었다. 통신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제2대 정당인 MHP는 기본적으로 국영기업 민영화를 반대하였으며, 上記한 IMF의 지적에도 가장 크게 반발하였다.

다) 정책투명성 결여 및 정치적 불안

경제회복으로 실물부문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융위기 경험국은 정책의 투명성이 결여되면 언제든지 위기가 다시 재발할 수 있는데, 터키의 금융시장불안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이다. 1차 위기 이전까지 터키경제는 낮은 이자율정책 지속, 지진피해복구 건설공사 개시, 수출경기 및 관광경기 회복 등으로 고도성장이 기대되었으며, 결국 터키경제는 2000년에 7.2%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차 위기는 부실은행 지원 정책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촉발되었고, 이와 같이 정책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는 경제개혁과 민영화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장의 신뢰가 무너져 외국인투자자들이 급속히 투자자금을 회수하였다. 또한 3차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도 국영기업 민영화 정

책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터키는 지난 10년간 주로 연정의 형태로 집권이 이루어졌는데, 집권기간이 대부분 1년을 넘지 못하는 등 오랜 정쟁으로 내재된 정당간 알력과 만연된 부패는 터키의 개혁에 매년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특히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에체비트(Bülent Ecevit) 총리에 의해 촉발된 정치적 불안은 2차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에체비트 총리는 금융부정과 관련하여 사기혐의로 체포된 몇몇 저명인사 가운데 연정체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측근이 포함되자 직권을 남용하여上記 금융부정 조사에 제동을 걸었다. 개혁세력을 대표하는 세제르(Ahmet Necdet Sezer) 대통령은 자신이 관장하는 감사기구를 통해 금융부정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여 총리와 대립하게 됨으로써 2차 위기 촉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다.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1) 최근 경제동향

IMF의 지원재개방침이 발표된 이후에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던 터키의 금융시장이 지난 2001년 8월 IMF가 터키에 대한 구제금융 대출을 승인하면서 안정되었다. 이는 또한 터키정부의 정책신뢰성 회복노력과 함께 국제금융기구가 터키경제를 긍정적 평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터키정부가 2001년 5월부터 추진해온 건전한 은행시스템 구축,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민간부문 육성을 위한 시장자유화, 중앙은행의 물가목표제 도입 등의 경제회생 프로그램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¹¹⁾ 2003~04년 터키경제는 5.8%와 7.7%의 고성장을 거듭하였고 인플레이션율도 지속적으로 안정되었

11) OECD(2004)에 따르면, 2002년부터 터키 금융시장의 제반여건이 개선되었고 국가경제의 기반도 강화되어 2001년의 경기후퇴(-7.5%의 경제성장률 기록)로부터 탈출하여 실질적인 회복국면에 진입, 2002년에 7.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다.12) 하지만 아직까지 연간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실업과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심화 등의 위험요인들이 상존해 있다.

표 1-1. 터키의 최근 경제동향

주요지표	단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인구	백만 명	65.5	66.6	67.6	68.6	69.5	70.5
명목 GDP	십억 달러	197.0	204.6	152.6	183.8	238.4	300.6
1인당 명목 GDP	달러	3,007	3,073	2,257	2,680	3,432	4,265
실질성장률	%	-4.7	7.3	-7.5	7.9	5.8	7.7
실업률	%	7.1	6.4	8.2	10.4	10.5	10.2
소비자물가상승률	%	64.9	54.9	54.4	45.0	25.3	10.6
재정수지(GDP 대비)	%	-10.9	-10.0	-15.2	-14.0	-11.1	-9.7
수출	십억 달러	28.8	30.7	34.4	40.1	51.2	66.7
수입	"	39.0	52.7	38.1	47.4	65.2	90.6
무역수지	십억 달러	-10.2	-22.0	-3.7	-7.3	-14.0	-23.9
경상수지	"	-1.3	-9.8	3.4	-1.5	-7.9	-15.6
환율(연평균)	TRL/USD	0.4209	0.6248	1.2326	1.5140	1.5045	1.4291

자료: Global Insight(2005), Online Service(<http://www.globalinsight.com>), February.

터키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점들은 부분적으로 국영은행과 민영은행 등 금융부문의 왜곡으로부터 비롯되었는바, 이 부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치유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신용도가 낮은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은행을 소유하면서 수익성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부실채권이 양산되었으며, 경제 전반에 비효율성을 가져왔다. 따라서 금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은 부실은행에 대한 정부의 단순한 자본투입보다는 금융권의 근본적인 경영형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13)

12) EIU(2004)

13) 2002년 터키정부가 금융권의 외형적 건실화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은 GDP의 약 30%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2) 향후 전망

실질금리의 완만한 하락, 실질환율의 전반적인 안정세 유지, 소비자 신뢰의 개선, 수출부문의 생산성 향상 등으로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둔화전망에도 불구하고 2005년 터키경제는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Global Insight는 아직도 과도한 대외채권 상환부담 등의 위험요인들이 있으나, 경제개혁이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면서 2005년에는 5.8%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¹⁴⁾ 또한 인플레이션은 2005년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폐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리라화 환율도 대체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2. 터키의 향후 경제전망

주요 지표	단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실질 GDP 증가율	%	5.8	5.3	4.9	4.7
소비자물가상승률	%	8.8	7.4	6.8	6.0
무역수지	십억 달러	-27.3	-26.6	-26.7	-27.2
환율(연평균)	TRL/USD	1.3982	1.3952	1.4168	1.4610

자료: Global Insight(2005), Online Service(<http://www.globalinsight.com>), February.

터키의 EU 가입협상 개시는 경제적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 12월 EU 정상회담에서 터키는 오는 2005년 10월부터 EU 집행위원회와 EU 가입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결정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터키가 EU 시장에 참가하면 EU 기존 회원국에 대해 상품 및 서비스 수출증가에 따른 GDP 증가효과가 기대되며, 아울러 주요 민영화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14) Global Insight(2005)

3. 주요 경제현안

가. 터키의 EU 가입

EU 25개국 정상들은 2004년 12월 16~17일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2005년 10월 3일부터 터키와 EU 가입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EU 정상들과 에르도간 터키 총리는 협상의 막판 걸림돌이던 터키의 키프로스(Cyprus) 승인문제를 놓고 밤샘 토론한 결과, Ankara 협정(EU·터키간 관세동맹)을 키프로스를 포함한 10개 EU 신규회원국에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의 의정서에 터키가 EU 가입협상 개시 전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하였고, EU 정상들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졌다.¹⁵⁾

이로써 지난 수십년간 EU에 편입하려는 터키의 노력이 처음으로 결실을 맺었으며, EU도 최초로 이슬람국가를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터키의 동 의정서 서명을 놓고 EU 외교관들은 이를 사실상 승인이라고 보는 반면, 터키의 에르도간 총리는 의정서 서명이 곧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함으로써 향후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 터키가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많은 장애물이 있는 만큼, 협상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타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터키는 1923년 공화국 수립 이후 줄곧 유럽에 편입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1964년 12월 1일 EU와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¹⁶⁾을 체결하여 일종의

15) 터키의 EU 가입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터키의 키프로스 승인문제는 터키, 키프로스 양국간의 역사적인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술한 제1장 1절 최근 정치 현황의 ‘대외관계’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16) 제휴협정은 일반적으로 유럽협정(Europe Agreement) 또는 준회원국 협정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EU 가입을 앞둔 전 단계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5월, EU 5차 확대시 신규로 가입했던 중·동구 10개 회원국도 1990년대 중반 이미 EU와의 제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EU 가입을 준비하였다.

준회원국 자격을 갖게 되었으며, 1987년에 터키는 정식으로 EU 가입을 신청하였다. 또한 1995년 12월 31일에는 EU와 관세동맹(customs union)¹⁷⁾을 맺어 1996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이처럼 터키가 EU와 관세동맹을 추진하게 된 것은 동 협정이 터키의 EU 가입에 대한 전초단계로 기능하기 때문이었다. 1999년 헬싱키 EU 정상회의에서는 터키를 EU 가입후보국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터키는 EU 가입기준인 코펜하겐 기준,¹⁸⁾ 특히 법제 및 인권상황에 대한 기준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다. 터키정부는 언론 및 집회의 자유 확대, 여성인권 개선, 군부의 정치참여 제한 등 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EU는 2002년 12월 코펜하겐 정상회의에서 13개 가입협상 대상국 중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를 제외한 10개국에 대해서만 2004년에 정식 신규회원국으로 받아들일기로 결정하였다. 터키는 EU가 신규회원국으로 받아들일기로 한 대부분의 국가보다 더 빨리 가입신청을 하였고, 그 후에 수차례에 걸쳐 가입협상 개시를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코펜하겐 기준의 정치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2년 후에 다시 가입협상 여부를 결정기로 하였다.¹⁹⁾

터키가 EU에 가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가입협상조차 시작하지 못했던 이유는, 터키의 EU 가입문제는 정치·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서 중·동구국가들의 가입과는 성격이 크게

17) 관세동맹은 경제통합단계에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 무역협정(FTA)보다 한 단계 발전된 것으로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를 실시한다.

18) 1993년 6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중·동구국가들에 문호를 개방할 것을 결정하고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이라는 명칭 아래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EU 가입조건으로 확정하였다. (i) 정치적 요건: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소수민족 존중 및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할 것, (ii) 경제적 요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EU내 경쟁압력과 시장조정력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iii) EU 공동체규범 준수요건: 정치협력, 경제통합동맹(EMU) 등 EU 관련 조약 및 공동체법규들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할 것 등이다.

19) 현재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2007년 가입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르기 때문이었다. 터키는 이슬람국가로서 기독교의 유럽과는 다른 종교권 일 뿐만 아니라, 터키를 가입협상국으로 받아들일 경우 모로코, 레바논, 이스라엘 등 여타 비유럽권 국가까지 EU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는 EU의 장기적 계획과 전망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인구 7,048만 명의 터키는 독일에 버금가는 대국인바, EU에 가입할 경우 인구 수에 따라 배분되는 이사회 의결권 및 유럽의회의 의원 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한 기존 회원국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었다.

터키와의 가입협상 개시 결정은 다수 유럽인이 거부감을 갖는 거대 이슬람국가를 회원으로 맞이하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긴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합의를 도출했던 EU 정상들도 터키의 가입협상 시작이 곧 자동가입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는 한편, 협상이 이른 시일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코페하겐 기준 충족을 위한 강도 높은 개혁 추진을 계속 주문함과 동시에 만약 가입후보국으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 등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언제라도 협상이 중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게다가 많은 EU 회원국은 터키의 지리적 위치, 빈곤국, 많은 인구와 큰 영토, 무엇보다 이슬람 국가라는 종교적 차이 등을 이유로 터키의 EU 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²⁰⁾

EU 회원국들은 터키와의 협상에서 이해국별로 자신들의 특별한 관심사항을 이슈로 제기하며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우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EU 회원국인 그리스계 키프로스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터키의 EU 가입을 반대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한편 그리스도 터키와 해안경계선 분쟁 등 해결되지 않은 다양한 현안이 있는바,

20) 터키의 2004년 인구는 약 7,048만 명으로 8,250만 명의 독일 인구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2004년 터키의 1인당 GDP는 4,265 달러에 불과하여 EU 회원국이 된다면 EU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터키와의 EU 가입협상에서 그리스정부가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은 터키의 EU 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프랑스에서는 찬반 국민투표를 계획하고 있어서 또 하나의 난관이 될 것이다.

나. 리라화의 리디노미네이션

2004년까지만 해도 터키 리라는 UN 회원국 가운데 1달러당 화폐가치가 가장 낮은 화폐였다. 터키 리라의 지폐는 50만TL, 100만TL, 500만TL, 1천만TL 등과 2001년 11월부터 신규 발행된 최고액권 2천만TL이 있었으며, 주화는 5만TL, 10만TL, 25만TL 등이 사용되어 실제 거래에서 5만TL 이하는 무시되었다. 최소단위 주화 5만TL은 약 3센트에 불과하였으며, 최고액 지폐 2천만TL도 겨우 13달러에 불과하였다. 터키의 버스요금은 90만 리라 정도였고 커피 한잔과 지하철 요금 등이 100만 리라가 넘었으며, 호텔 1박 비용이 1억 리라에 달함에 따라 모든 상품에 표시되는 가격표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화폐단위를 기록해야 하는 각종 기계 또한 특수제작이 필요하였다.

1940년대에 1달러에 1.5리라 정도였던 환율은 거듭된 경제정책 실패와 초인플레이션으로 2003년 3월에는 1달러당 최대 171만 5,488리라까지 환율이 급등하였다. 2000년 12월과 2001년 2월 발생한 두 차례의 금융위기로 인해 터키정부는 당시까지 유지해오던 고정환율제도를 포기하고 2001년 2월 22일부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이로 인해 1달러당 68만TL 수준이던 리라화의 가치가 40% 가량이 즉시 하락하였으며, 그 뒤에도 하락세가 계속되어 약 2개월 뒤에는 무려 75%의 가치하락이 이루어졌다. 그 후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게 된 터키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대내외 충격으로 환율이 급변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며, 2003년 3월에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우려로 달러당 170만TL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가치하락을 경험하였던 터키 리라(TL)는 결국 2005년 1월 1일을 기해 새로운 터키 리라, 즉 YTL로 대체되었다. 新리라(YTL)와 舊리라(TL)의 교환비율은 1대 1,000,000이었다. YTL의 지폐는 1, 5, 10, 20, 50, 100 YTL 등이 발행되고, YTL의 하위단위인 동전의 단위는 쿠루스(kurus)로 100쿠루스가 1리라이며 1, 5, 10, 20, 50, 100 쿠루스 동전이 발행되었다. 1달러에 무려 130만 리라에 이르던 對美달러 환율은 1달러당 1.3리라로 조정되었다. YTL과 TL은 2005년에는 함께 사용되고, TL은 2006년까지만 은행에서 YTL로 교환될 방침이다. 2005년에는 YTL과 TL 두 단위로 동시에 가격표시를 해야 된다.

그림 1-2. 터키 리라화의 환율변동 추이



자료: Global Insight(2005), Online Service(<http://www.globalinsight.com>).

터키정부의 上記와 같은 리디노미네이션 실시에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와 고성장 등에 의한 자신감이 다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높은 지하경제 비율을 축소해보려는 의도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1년에 54.4%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은 2002년 45.0%, 2003년 25.3% 등을 기록하였고, 2004년에는 10.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5년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8%이다. 2001년 금융위기 이후 2002년 7.9%, 2003년 5.8%의 고성장을 이룩한 터키경제는 2004년에 7.7%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5년에도 5.5% 이상의 고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터키의 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높은 세금부담으로 터키의 지하경제규모는 공식적인 경제규모의 약 6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터키의 물가가 안정세에 있고,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실한바, 리디노미네이션에 의한 물가급등과 같은 커다란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터키 중앙은행과 정부는 이번 리디노미네이션이 인플레이션을 한 자릿수로 안정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의지의 표현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2004년 9월부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한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5년 목표치 8% 달성에 대해서도 터키정부는 물론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²¹⁾

터키가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함에 따라 OECD 국가 가운데 1달러당 화폐가치가 1,000을 넘는 국가는 한국만 남게 되었으나, 터키의 사례는 한국의 경제상황과 많은 차이가 있어 바로 2004년 말에 이슈화되었던 한국의 리디노미네이션 논쟁에 적용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터키는 최근 10년 사이에 초인플레이션과 자국화폐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경험한 반면, 한국은 터키와 같이 금융위기를 경험한 바 있으나 터키와 같은 초인플레이션이나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경험하지 않았다. 2004년까지 터키의 화폐가치는 한국 원화 1천 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30만 리라에 달하였는바, 화폐단위 측면에서

21) EIU(2005)

터키와 한국은 비교가 될 수 없다. 또한 터키의 리디노미네이션 사례가 궁극적으로 후진국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둬들인 경제정책 실패로부터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는바, 한국경제에 이를 바로 적용하는 데에는 다소의 무리가 따른다.

다. 경상수지 적자 심화

2001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되었던 터키의 대외교역은 2003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2004년 들어 크게 증가하였다. 2003년 봄부터 미국의 對터키 자금지원에 힘입어 국내경기가 급속히 회복되면서 교역량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라크 전쟁의 조기 종결로 터키의 금융시장에 자금이 급속히 유입되었고, 소비자물가 안정으로 인한 실질금리 하락으로 개인소비와 민간 설비투자가 증가함으로써 교역활성화가 더욱 촉진되었다.

표 1-3. 터키의 부문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수 출					
농림수산업	2,432	1,988	2,264	2,081	2,525
광업	385	400	349	387	532
제조업	23,755	25,399	28,695	33,549	43,699
기타	15	38	26	42	122
전체	26,587	27,775	31,334	36,059	46,878
수 입					
농림수산업	1,654	2,128	1,413	1,706	2,554
광업	4,254	7,105	6,583	7,199	10,884
제조업	34,672	44,973	33,220	42,235	54,928
기타	91	297	183	414	368
전체	40,671	54,503	41,399	51,554	68,734

주: 여행자를 통한 반입상품 등이 제외된 통관기준이며,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기준임.
 자료: EIU(2004), *Country Profile 2004: Turkey*.

표 1-4. 터키의 국별 수출입 현황

(단위: %)

순 위	주요 수출상대국	수출비중	주요 수입상대국	수입비중
1	독일	15.9	독일	13.7
2	미국	8.0	이탈리아	7.9
3	영국	7.8	러시아	7.9
4	이탈리아	6.8	프랑스	6.0
5	프랑스	6.0	영국	5.1
6	러시아	2.9	미국	5.0
참고	EU	51.9	EU	45.8

자료: EIU(2004), *Country Profile 2004: Turkey*.

이러한 경기활성화에 따른 교역확대는 수출부문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수입부문의 증가가 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2003년에 전년대비 27.7% 증가하여 512억 달러를 기록한 터키의 수출은 2004년에는 30.3% 증가한 66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은 이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여 2003년에 전년대비 37.6% 증가한 652억 달러를 기록한 뒤, 2004년에는 무려 39.0% 증가한 906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제조업부문의 거래량 확대가 가장 두드러지며, EU와의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 가운데에서도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철강, 전기전자부문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자동차부문을 비롯한 자본재 수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1~6월 기준으로 터키의 對EU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0%, 수입은 51% 증가하였으며, 對중국 수입은 99.6% 증가하였다.

터키의 설비투자수요 급증과 내수경기 활성화로 수출보다 수입의 증가폭이 훨씬 크게 나타난 결과 2001년 금융위기 발생시점에 대폭 개선되었던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의 적자폭이 다시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는 2003년 140억 달러에서 2004년에는 239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경상수지적자도 2003년 79억 달러(GDP 대비 3.3%)에서 2004년 156억 달러(GDP 대비 5.2%)로 심화되었다. 이처럼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2001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터키 경제의 외채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표 1-5. 터키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외국인직접투자	805	940	783	982	3,266	1,038	575 (18,196)
해외직접투자	251	367	645	870	497	175	499 (5,546)

주: () 안은 누적치.

자료: UNCTAD(2004),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제2장 韓 · 터키 경제협력 현황

1. 개요

터키는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에 참전하는 등 지난 50년간 한국과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그간의 경제협력 진전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경제협력 현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양국의 경제규모 및 지리적 여건 등 대내외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양국은 아직 상당한 협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터키는 상당히 커다란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있고 경제·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1996년 이후 터키와 EU간에는 관세동맹이 발효되고 있고, 터키는 1999년 10월 13일 EU로부터 공식적인 회원국 후보자격을 부여받았다. 또한 터키는 여러 중·동구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CIS 지역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2.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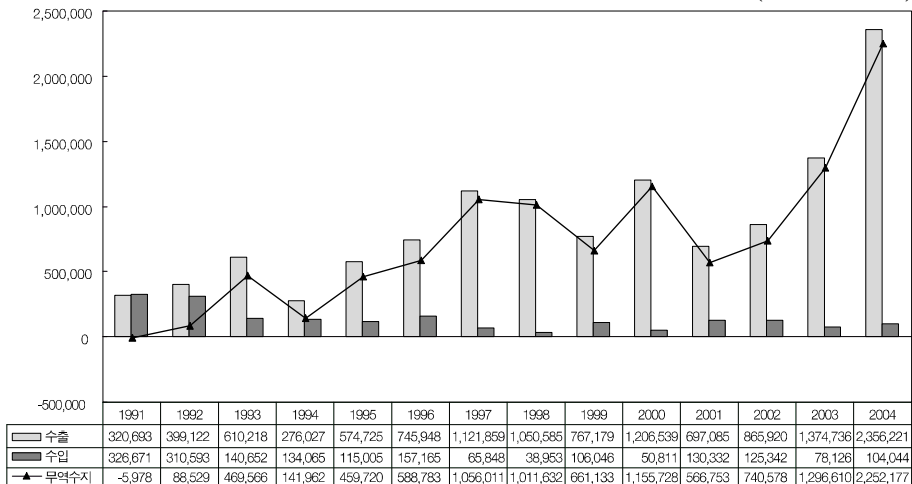
가. 교역추이

터키는 2004년 기준으로 한국의 23대 수출국이며, 한국의 69대 수입국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시작된 터키와의 교역은 다소의 등락은

있었으나 대체로 꾸준하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1990년대 중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1997년 이후 한국의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양국간 교역은 1999년까지 급속히 축소되었다. 2000년에 對터키 수출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던 양국간 교역은 2001년 들어 터키의 금융위기 발생으로 잠시 위축되었으나 2002년부터 다시 활성화되었다. 2001년 전년대비 42.2%의 감소를 기록했던 한국의 對터키 수출은 2002년에는 24.2% 증가하였고, 2003년과 2004년에는 58.8%와 71.4%의 증가를 기록,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 2-1. 韓 · 터키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나. 주요 교역품목

품목별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양국간 교역은 2001년까지 한국의 對터키 수출이 선박에 편중되어오다가 최근 들어 한국의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수출품목이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2004년 우리의 對터키 수출은 자동차(MTI 품목코드 741)가 27.3%를 점하고 있다. 이밖에는 무선통신기기(同 812)가 6.6%, 자동차부품(同 742)이 5.4%, 영상기기(同 821)가 5.3%, 인조장섬유직물(同 434)이 5.1%를 각각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 韓 · 터키 업종별 수출입 내역

(단위: 백만 달러, %)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자동차	643.7(27.3)	기호식품	13.9(13.3)
무선통신기기	156.0(6.6)	선재봉강·철근	12.0(11.5)
자동차부품	128.3(5.4)	기타 비금속광물	8.8(8.4)
영상기기	124.3(5.3)	의류	6.4(6.2)
인조장섬유직물	119.3(5.1)	수산가공품	5.0(4.8)

주: MTI 3단위 기준, () 안은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2002년까지 원유수입에 편중되어 있던 수입품구조는 이라크전 발발 이후 원유수입 루트의 변경으로 수입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수입품목의 다변화가 이루어졌다. 2004년 우리의 對터키 輸入은 기호식품(MTI 품목코드 015)이 13.3%를 점하고 있다. 나머지는 선재봉강·철근(同 612)이 11.5%, 기타 비금속광물(同 129)이 8.4%, 의류(同 441)가 6.2%, 수산가공품(同 046)이 4.8%를 각각 점하고 있다.

3. 투자

2005년 1월 말 현재, 우리의 對터키 직접투자 건수 및 규모는 신고기준으로 27건에 1억 9,485만 달러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이 터키 현지에 합작공장을 건설하는 등 우리의 對터키 진출은 주로 제조업부문에 집중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도·소매업(4건)과 서비스 부문(1건)에 대한 투자도 다소 이루어지고 있다. 對터키 진출 27건 가운데 19건이 제조업부문에 대한 투자이며, 특히 전자통신장비(5건), 섬유 의복(4건), 수송기계(4건) 등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터키는 유라시아의 중심시장이며, 생활방식 및 소비패턴이 이미 서구화되어 있고 EU 등 주변 경제권과 관세동맹 내지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지리적으로 한국에 중요한 거점을 제공할 수 있다. 국내자본의 부족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터키정부는 최근 국유부문의 민영화 등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터키의 금융시장 상황이 호전되고 있어 한국의 對터키 투자진출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 한국의 對터키 해외투자

(단위: 천 달러)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월 말 현재 잔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고	1	14,375	0	13,280	2	300	4	25,613	3	2,447	27	194,851
투자	1	12,310	0	22,600	2	275	3	3,337	4	3,809	26	105,99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글상자 2-1. 한국기업의 터키 현지법인

- HYUNDAI ASSAN AOTOMOTIV SANAYI VE TICARET ANONIM SI: 수송
기계
- KTNG TUTUN MAMULLERI SANAYI ANONIM SIRKETI: 음식료품
- EGEMETAL INDUSTRIES A.S.: 광업
- ARCELIK-LG KLIMA SANAYI VE TICARET A.S.: 전자통신장비
- EYTAS YATIRIM VE TICARET A.S.(II): 광업
- KIA-IHLAS MOTOR A.S: 수송기계
- MAYSAN HALLA OTOMOTIV PARCALARI SANAYI VE TICARET A. S: 수
송기계
- VESTEL GOLDSTAR ELECTRONIC INDUSTRY AND TRADING: 전자통신
장비
- CJ-TUR FEED INDUSTRY AND TRADING CO., LTD.: 음식료품
- SAMSUNG ELECTRONICS TICARET A.S.: 전자통신장비
- KIMSOY DYES TRADE COMPANY INCORPORATED(ADANA): 석유화학
- CAS ELEKTRONIK SANAYI VE TICARET A.S: 도·소매업(전자통신)
- ASSAN HANIL OTOMOTIV SANAYI TICARET A.S.: 수송기계
- SEGURA TEKSTIL SANAYI VE TICARET A.S.: 섬유·의복
- GMDAT TURKEY LIMITED SIRKETL: 도·소매업(자동차)
- YOUNGONE(ISTANBUL)APPAREL INDUSTRIES AND TADE LIMITED
COMPANY: 섬유·의복
- ASSAN HYUNDAI CELIK URUNLERI SANAYI VE TICARET AS: 1차 금속
- KDE EURASIA: 서비스업
- KORUTAS TEKSTIL SANAYI VE TICARET ANONIM SIRKETI: 섬유·의복
- CROWN MAKINA IGNE VE PLATIN SAN. VE TIC.LTD.STI: 조립금속
- KIMSOY DYES TRADE COMPANY INCORPORATED(MERSIN): 도·소매업
(기타)
- FORA DENIZ GIDA TURIZM SANAYI VETI: 농림어업
- BASKI DEVRE D/S: 전자통신장비
- TUR-KOR TEXTIL SANAYI ANONIM SIRKETI: 섬유·의복
- SEO DIS TICARET LTD STI: 도·소매업(기타)
- TEKNO 2000 A.S: 조립금속
- OZBAR ELEKTRONIK SANAYI VE TICARET LIMITED SIRKETI: 전자통신
장비

터키는 소비성향이 강한 약 7천만 명 인구의 내수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터키의 경제발전단계와 발전전략에 맞추어 한국기업들의 투자전략을 수립·시행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터키에서는 자동차 및 가전제품 등의 조립생산분야가 발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밀기계 및 부품,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등의 진출이 유망하다. 또한 현재 계획되고 있는 지역별 전력 및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건설·중장비·중공업분야의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터키의 IT부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 IT부문의 진출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주요 경제협력 현안

터키경제는 최근 고성장 지속, 환율절상과 이에 따른 금리하락, 물가상승률 둔화 등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채무부담이 큰 상황이며, 많은 개혁과제를 안고 있다. 관료주의에 의해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과도한 수수료 및 부대비용 등으로 낭비요인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율, 환위험, 고금리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과 고율의 법인세, 그리고 비효율적인 전력관리로 인한 비싼 전력요금 등은 터키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장애요인들이다.

1992년부터 한국의 對터키 무역은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2004년에는 흑자규모가 22억 달러를 초과하였고, 수입이 수출의 1/23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무역불균형 심화에 대해 최근 터키정부가 정책적인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양국간 교역활

성화와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터키의 우수한 제품들을 유망 수입품목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터키로부터의 주요 수입품이 주로 1차 산품에 국한되어 있어 단기간에 이러한 무역불균형문제를 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섬유류의 수입절차 강화와 함께 최근 터키 세관당국은 섬유류 수입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한국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그동안 한국업체들은 터키 수입상들의 요청으로 일부 Undervalue 수출을 해온 것이 사실인바, 이에 대한 세관검사가 강화되고 있다.²²⁾ 세관검사에 의해 Undervalue 수출이 확인될 경우 한국물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및 수입바이어에 대한 세무조사 등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2004년까지 반덤핑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한국산 섬유제품은 모두 네 가지 품목(HS 코드 5503.20, 5402.43, 5402.33, 5407)이며, 금속방사(HS 코드 5605)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2004년 7월 종결되어 한국산에 대해 123.22%의 덤핑마진 판정이 이루어졌다.

관세동맹 체결로 터키는 EU 비회원국과의 어떠한 경제협력도 EU와 논의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사실 역시 터키가 한국과의 교역 및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6년부터 EU와 터키간 관세동맹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EU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큰 격차를 보여 우리의 對터키 수출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對터키 철강 수출에 있어 이러한 관세율 차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EU산 철강은 무관세인데 반해 非EU산 철강에 대해서는 열연 강판 11%, 냉연 강판 13%, 아연도금 강판 6%, 전기 도금 강판 14%, 컬러 강판 12% 등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22) 터키정부는 1998년부터 직물류 수입통관세관을 대폭 축소하여 물량대조, 원산지 조회 등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 소요기간이 상당 기간 지체되어 추가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EU산 제품의 경우에는 CE 인증만으로 수입이 가능한 반면, 한국상품과 같은 非EU산 제품은 CE 인증과 함께 터키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TSE 인증을 취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한바, 이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터키정부는 모든 무역시스템을 EU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목적과 중국 등 아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저가의 조악한 제품을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2004년부터 CE 인증을 의무화하였다. CE 인증은 對EU 수출 공통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문제는 상기와 같이 차별적으로 非EU산 제품의 경우 이중으로 TSE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점이다.²³⁾ 터키정부도 CE 인증과 TSE 인증의 중복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바, 정부간 협력 채널을 통해 양대 인증제도의 신속한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23) 식품, 의약품, 신발 및 섬유와 같은 소비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이 인증대상이 되고 있는 TSE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3~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특히 신제품의 터키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자연시킴은 물론 수출업자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제3장 韓 · 터키 경제협력 증진방안

1. 양국간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前述한 바와 같이 양국의 경제규모 및 지리적 여건 등 대내외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양국은 상당한 경제협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연구개발 경험 및 자본력과 터키의 전문 기술인력 및 풍부한 노동력간의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개발과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할 경우 양국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터키의 풍부한 저임 노동력과 한국기업의 응용기술을 결합하여 제품을 터키에서 공동 생산, 인근 제3국에 수출할 경우 터키의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하여 양국간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한국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저임의 터키 건설 노동력과 한국의 시공기술을 결합하여 인근 제3국 건설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등의 경제협력 가능성도 충분하다.

생산기술과 첨단설비 운용기술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터키기업과 적극적인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경우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터키기업들은 유럽으로부터 첨단설비의 구매를 확대해왔으나 이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술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국간 경제협력방안의 일환으로 韓 · 터키 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지면 저렴한 비용으로 위험을 분산하면서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지식의 원활한 교환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양국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될 경우 경쟁제품의 다양화나 경쟁열위제품의 퇴출에 따라 국내외시장에서 국내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양국 기업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역주의와 기술패권주의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면서 신속히 글로벌화를 추진할 수 있다. 양국 기업간 전략적 제휴는 양국 시장에서 유통망과 특정 지식을 공동 활용하여 보다 적은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고도 동시에 다수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양국 기업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보유자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자력으로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양국 기업간 전략적 제휴는 양국간 합작투자법인의 효율적 관리능력 배양과 경영자원을 핵심역량 강화에 집중시킬 수 있는 경쟁력 강화수단이다. 이러한 전략적 제휴는 양국 기업간 상호 보완적인 기능과 비교우위분야의 결합을 통해 최소한의 투자로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능력을 강화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양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2. 경제협력 증진방안

가. 韓·터키 경제협력의 기본방향

韓·터키 경제협력의 증진은 기업간 전략적 제휴에서부터 정부간 협력체제 구축에 이르기까지 범위와 내용 면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양국은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술제휴와 공동 기술개발, 더 나아가서는 공동 생산과 제3국 공동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양국 기업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양국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적극 후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EU시장 우회진출과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터키는 자본 및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터키는 경제·정치적인 면에서 한국정부 혹은 기업이 유럽과 중동 및 중앙아시아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다. 한편 터키는 최근의 고성장세를 안정적인 성장기조로 안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FDI 유치 등을 통한 선진기술 및 비즈니스 경험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터키는 한국이 IT부문에서 선진기술을 조기에 습득하여 경쟁력을 강화한 데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략을 벤치마킹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경협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은 상호간 시장개방뿐 아니라 비용을 분담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인접시장에 공동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양국간의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면서 교역과 투자 및 기술협력을 확대하여야 하며, 세계시장에서 견고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양국간 경제협력은 양국 기업의 구조조정 및 효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화의 주요 촉진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나. 韓·터키 경제협력 증진방안

단기적으로 양국 기업간 기술제휴를 적극 유도하며, 중장기적으로 EU시장 우회진출과 중동 및 중앙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공동 생산체제를 터키에 구축토록 지원해야 한다. 터키 측은 한국기업의 對터키 직접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한국이 터키로부터의 수입을 증대시켜 무역수지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²⁴⁾ 한국기업의 對터키 직접투자는 무역불균형문제를 희석시키면서 양국간 경제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

24) 터키 무역부는 2004년 말 아시아 국가에 대한 경제전략을 발표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바, 주요 수입품을 터키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바, 국내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진출이 요망된다.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韓·터키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이로 하여금 양국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양국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고, 한국기업의 효율적인 터키 진출을 지원토록 해야 한다. 기업인, 학계, 관계 인사의 꾸준한 교류가 요구되고, 이 인사들을 매개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나가야 하며, 이들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 관련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韓·터키 경제협력 주관기관은 터키 진출 한국기업과 기관, 그리고 한국의 연구기관과의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하여야 하는데, 특히 한국의 경제개발 및 위기극복사례를 터키정부 및 경제계에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터키는 한국이 조기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낮은 물가수준을 유지하면서 성장궤도에 재진입한 데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기업은 기술역량과 자원의 보완성이 강한 터키기업을 제휴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기술제휴 초기단계에서 정부기관 혹은 韓·터키 경제협력 주관기관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이 필요하다. 양국 기업간의 전략적 기술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의 교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上記한 바와 같이 양국에 이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同 창구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여 상호 보완성이 높은 기업간의 제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韓·터키 기업간 기술제휴는 양국 기업들의 원활한 양국 시장 진입과 중소기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양국 기업간 혹은 양국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연구소가 참여하는 기술제휴는 양국의 수출증대, 산업구조 개편, 신산업육성, 고용창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함께 양국간의 기술제휴는 전문성과 기술능력의 제고 및 제품과 고객기반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터키기업은 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기술의 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바, 국내기업의 기술이전과 공동 연구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유치산업의 경우 양국 기업간 전략적 기술제휴는 신기술과 신제품의 공동연구·개발에 목표를 두면서 교차 라이선싱, 공동 연구개발, 소수 지분 참여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장산업의 기업간 전략적 기술제휴는 신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제품 생산을 목표로 아웃소싱과 기술 합작투자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다. 경제협력 유망부문

韓·터키 경제협력의 유망부문으로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통신, 이동통신기기, 철강, 섬유, 화학, 건설, 에너지, 방산, 운송, 농산물 등을 들 수 있다. 同 부문에서 양국 기업은 기술제휴, 합작생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제3국 시장 진출을 공동 모색하며, 정부 주도형 기술개발에 공동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터키의 자동차산업은 1960년대 초 이후 본격 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3개의 터키 자동차업체가 포드, 피아트, 도요타 등과 합작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오펠(GM), 르노, 현대, 혼다 등도 현지에서 단독 혹은 합작형태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2004년 터키의 자동차업체는 생산이 52% 증가한 82만 2,350대, 수출이 44% 증가한 51만 8,607대를 기록하여 전 세계 자동차 생산국가 가운데 18위, 유럽에서 6위를 차지하였다. 터키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150~200개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업체와의 합작을 통해 고품질의 저렴한 부품을 국내에 공급하거나 수출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수출국은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

랑스, 이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이집트, 베네룩스 3국, 파키스탄, 시리아, 오스트리아 등이다.

최근 현대자동차는 터키 합작법인의 지분을 기존의 50%에서 70%로 확대하여 터키공장을 유럽과 중동지역의 생산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가 터키공장을 동반 증설할 계획이며, 현대모비스는 터키공장에서 생산된 부품을 유럽의 다른 자동차회사에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2) IT 및 통신산업

최근 터키의 정보 및 데이터 처리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장비산업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터키의 통신시장규모는 약 70억 달러로 2005년 투르크텔레콤(Turktelekom)의 민영화를 계기로 성장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3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GSM 시장에 외국자본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T산업의 경우 2004년에 20만 대의 랩탑 컴퓨터와 100만 대의 데스크탑 컴퓨터가 판매되었고, 소프트웨어 수출은 1억 5천만 달러 규모에 달했으며, 2005년 IT산업은 전체적으로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4월 韓·터키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르크텔레콤 민영화에 대한 참여, 韓·터키 IT 협력센터 설립, IT 기술정책 자문단 파견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섬유산업

터키의 섬유산업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친 산업화과정에서 비약적인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며, 섬유산업은 터키의 최대 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섬유산업은 터키 GDP의 10%, 전체 고용의 20%, 그리고 전체 수출의 25%에

달하고 있다.

터키의 섬유산업은 수직통합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생산제품으로는 면제품류를 들 수 있다. 2004년 1~11월 터키는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117억 달러의 의류수출과 25% 증가한 41억 달러의 직물수출을 기록하였다. 양국 모두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하여 양국 기업이 고부가가치 및 신 소재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분업생산을 추진할 경우 기대수익이 높을 전망이다.

터키는 한국의 세계 8대 직물수출시장이며, 유럽국가 가운데에서는 최대 직물수출시장이다. 노동집약적인 봉제의류산업이 발달한 터키는 한국으로부터 직물을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봉제의류를 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지로 수출한다. 유럽시장에서 터키 의류는 중국산에 비해 브랜드화에 성공하여 유럽 선진국 바이어들로부터 호평받고 있으며, 향후 터키 의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 직물업계는 이러한 터키 의류산업의 움직임에 잘 적응하여 경쟁력 있는 고급직물을 지속적으로 공급, 터키시장을 유럽 섬유시장의 교두보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005년부터 섬유쿼터가 폐지되어 중국산 제품의 터키 유입이 급격히 증가할 것을 우려하였으나, 터키정부는 42개 중국산 의류 및 직물에 대해 2005년 1월 9일부터 수입쿼터를 부과함으로써 한국 직물업계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4) 건설

터키의 건설부문은 터키의 서비스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터키 건설업체들은 국내업체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의 중동 붐을 기반으로 급성장하였다. 터키의 건설업체들은 러시아와 유럽의 건설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이 시장들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5년 터키의 건설부문은 집단주택단지 건설 프로젝트와 모기지론 도입 등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며, 공공건설부문에 대한 정부예산이 48% 증가하였는바 고속도로 및 철도부문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터키업체와 합작으로 중앙아시아 시장 및 중·동구 유럽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최근 터키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적극 참여하여 양국간의 경제협력 강화에 일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金興鍾·李哲元·朴映坤·朴慶錫. 2003.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지역연구 03-02.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http://www.kotra.or.kr>.
- 이철원. 2004. 『EU 확대 이후 중·동구 지역의 교역·투자 전망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지역리포트 04-02.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2004. *KOTIS*(<http://kotis.kita.net>).
- 한국수출입은행. 2004. *한국종합투자통계*(<http://www.koreaexim.go.kr>).
- Bloomberg Service*.
- Deutsche Bank. 2001. *Economic & Financial Outlook*, Eastern Europe Online. (July 30, last update)
- _____. 2002. “Runaway costs or willingness to reform - the two sides to enlargement.” *EU Enlargement Monitor: Central and Eastern Europe*. (July 17)
- Dulleck, U., N. Foster, R. Stehrer, and J. Wórcz. 2003. “Are CEECs trapped in low-quality export specialization?” *Monthly Report, 2003/8-9*. WIIW(The 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 EIU. 2004. *Country Profile: Turkey*.
- _____. 2005. *Country Report: Turkey at a glance: 2005-06*. (February)
- EIU viewswire*(<http://www.viewswire.com>).
- European Commission.(<http://europa.eu.int>).
- Financial Times. 2001a. *Financial Times Survey: Turkey*. (July 13)
- _____. 2001b. “Fischer visit brings show of confidence in Turkish future.” (July 30)
- _____. 2001c. “Slow reform may hurt S Korea.” (August 3)
- _____. 2001d. “Turkey’s ambitions on economic reform face a field test.” (July 19)
- Global Insight. 2004. *Online Service*(<http://www.globalinsight.com>).
- IMF 2000. *News Brief No. 00/107 & No. 00/113*. (November 26 & December 6)
- _____. 2004.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 OECD. 2004. *Economic Surveys: Turkey*. (December)
Oxford Analytica(<http://www.oxweb.com>)
- S&P's DRI. 2001. *World Economic Outlook*, 2nd Quarter.
UN COMTRADE(<http://unstats.un.org/unsd/comtrade>)
- UNCTAD. 2004.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 WEFA. 2001. *World Economic Outlook*, 2nd Quarter.
- World Bank. 2004. *Global Economic Prospects 2005: Trade, Regionalism and Development*.

부록 1. 터키 개황

□ 자연지리

- 국토면적: 779,452km²(한반도의 약 3.5배)
- 인 구: 7,048만 명(2004년 기준)
- 기 후: 내륙지방은 대륙성 기후, 해안지방은 해양성 기후 (연평균 기온: 11.8 °C, 최저 기온: -24.9 °C, 최고 기온: 40.0 °C, 연평균 강수량: 367mm)

□ 행 정

- 공식국명: 터키 공화국(Republic of Turkey)
- 수 도: 앙카라(Ankara)
- 주요도시: 앙카라(350만 명), 이스탄불(Istanbul, 920만 명), 이즈미르(Izmir, 310만 명), 안탈리아(Antalya, 150만 명)

□ 정 치

- 정부형태: 대통령제를 가미한 의원내각제
- 국가수반: 세제르(Ahmet Necdet Sezer) 대통령
 - 임기: 7년
 - 2000년 5월 의회에서 간선
 - 연임 불가
- 의회형태: 단원제
 - 임기: 5년
 - 의석 수: 550석
- 행정부: 각료회의

- 최고 행정집행기관인 각료회의는 총리, 각 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
- 총리는 의회의 동의하에 대통령이 임명함.
- 총리: 에르도간(Recep Tayyip Erdogan)
- 선거제도: 만 18세 이상 보통 직접선거
- 최근 선거
 - 대통령 선거: 2000년 5월 의회간접선거
 - 총선: 2002년 11월
- 차기 선거
 - 대통령 선거 : 2007년 5월
 - 총선: 2007년 11월

□ 사회 · 문화

- 민 족: 터키人(80.8%), 쿠르드人(18.4%), 아랍人(0.6%), 아르메니아人(0.1%)
- 언 어: 터키語
- 종 교: 이슬람 수니파(99.8%), 기타(기독교, 유대교, 그리스정교)
- 도 량 형: 미터法

□ 한국과의 관계

- 국교수립: 1949년 8월
- 협정체결: 사증면제협정(1972년 5월), 문화협정(1974년 5월), 통상진흥·경제기술협력협정(1977년 12월), 항공협정(1979년 10월), 이종과세방지협정(1986년 3월), 투자보장협정(1994년 6월), 섬유협정(1997년 7월), 원자력협력협정(1999년 6월)
- 韓 · 터키 교역규모(2004년): 24억 6,027만 달러
 - 韓國 22억 5,218만 달러 黑字

- 韓國의 對터키 直接投資(2005년 1월 말, 신고 기준): 27건(1억 9,485만 달러)
- 주요 수출품목(2004년 MTI 3단위 기준): 자동차(27.3%), 무선통신기기(6.6%), 자동차부품(5.4%)

부록 2. 터키의 수도이전 사례

가. 수도이전 개요

- 터키의 수도이전은 독립전쟁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공화국 출범과 함께 수도이전이 선포됨.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제국의 분열이 이루어졌으며, 옛 수도 이스탄불이 그리스에 점령되어 있는 상태에서 독립전쟁을 수행하던 국민당 정권이 군주제를 폐지하고 1923년 10월 터키공화국을 출범시키면서 앙카라를 수도로 선포함.
 - 1924년에 앙카라는 시로 승격되었으며, 1925년에 소련 대사관과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이 앙카라로 이전하면서 수도이전이 가시화됨.
 -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 등의 이전이 1926년에 시작되어 3년 만에 완료되었으며, 1928년에 앙카라 개발계획안이 채택되었음.

- 새로운 수도 앙카라의 개발계획은 193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경제개발 5개년계획도 병행 시행되었으나, 1939년 2차대전 발발로 중단된 뒤 종전 이후 급격한 도시집중화로 앙카라의 난개발이 진행됨.
 - 1932년부터 시행된 도시개발계획안은 앙카라를 인구 30만 명의 계획도시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2차대전 종전 이후 인구 급증과 도시집중화가 급격히 이루어져 앙카라의 난개발로 이어짐.
 - 이에 따라 앙카라를 인구 75만 명의 계획도시로 개발하는 2차 도시계획안이 1957년에 시행되었으며, 1990년에는 다시 인구 360만 명의 3차 도시계획안이 시행됨.

나. 수도이전 전후의 경제상황

- 수도이전 전 터키의 경제는 전시상황이었는데, 구체적인 경제지표를 알 수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됨.
- 술탄에 의한 군주제가 붕괴되면서 근대화의 전기가 마련되었던 시기이며, 그리스와의 독립전쟁이 한창이었음.
- 1913년부터 1923년까지 경제성장률은 약 연평균 1.6%에 머물렀으며, <부표 1-2>에서와 같이 1913년에 979달러였던 1인당 GDP는 1923년에 561달러로 하락하였음.

부표 1-1. 수도이전 전후 터키의 경제상황 변화

(단위: %)

	1913~50년	1950~73년	1973~92년
실질 GDP 증가율	3.0	6.1	4.5
1인당 GDP 증가율	0.8	3.3	2.6
인구증가율	1.3	2.7	2.3

자료: OECD(1995), *Monitoring the World Economy 1820~1992*.

부표 1-2. 터키의 1인당 GDP와 인구 추이

	단위	1913년	1923년	1926년	1932년	1957년	1990년
1인당 GDP	미 달러	979	561	851	950	1,741	4,263
인구	천 명	13,000	13,877	14,151	15,414	25,498	56,473

자료: OECD(1995), *Monitoring the World Economy 1820~1992*.

- 대부분의 국가기관 이전이 완료된 시점이 1928년이고 1차 앙카라 개발계획안이 시행된 시점이 1932년임을 감안하면, 대략 1913~50년을 수도이전 전후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음.
- <부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3~50년 터키의 경제상황은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가 측면에서 그리 좋은 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음.
- 그러나 상기 기간에서 독립전쟁시기, 군주제에서 공화제로의 전환기 및 2차대전시기를 제외하고 앙카라 개발계획이 본격 추진된 1932~39년 기간만을 살펴보면, 터키는 同 기간 동안 무려 연평균 7.8%의 경제 성장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남.

다. 경제상황 변화요인 분석

- 터키의 사례에서 수도이전이 상기와 같은 고성장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보는 데에도 다소 무리가 있지만, 최소한 터키 사례가 무리한 수도이전의 부담으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사례로 활용될 수 없음은 분명함.
- 2차대전 발발로 연평균 8%에 가까운 터키 경제의 고성장세가 꺾였으나, <부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대전이 종전되고 2차 앙카라 개발계획이 추진되었던 1950~73년 동안 터키의 경제는 연평균 6% 이상의 고성장이 지속되었음.
- 이러한 고성장으로 연간 2.7%라는 급격한 인구증가율에도 불구하고 터키의 1인당 GDP 증가율은 연평균 3.3%에 달해 같은 기간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소득증가가 이루어졌음.

- 수도이전 이후 앙카라의 난개발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집중화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해 터키의 수도이전을 실패사례로 분류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부표 1-1>과 <부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터키의 인구증가는 1950년 이후 급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수도이전 당시 약 1,500만 명이던 인구가 현재에는 무려 7천만 명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인구증가와 농촌인구의 급격한 도시유입으로 수도로 지정된 1923년 3만 명의 작은 마을이었던 앙카라는 1927년 7만 5천 명으로 인구가 증가하였고, 그 후 1955년에는 45만 명, 1985년에는 225만 명에 이르렀으며, 2000년에는 약 360만 명에 달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수도이전 이후 난개발문제는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농촌인구의 도시 이동이 거의 완료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인구급증과 도시집중화과정에서 앙카라로의 수도이전은 이스탄불로의 인구집중화를 다소 완화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2000년 현재 이스탄불 인구는 920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이스탄불 일극 중심에서 앙카라로 다극화됨에 따라 인구집중현상이 다소 완화된 결과로 평가됨.
 - 또한 낙후된 중동부지역의 앙카라가 새로운 수도로 개발됨에 따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과제도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평가됨.

Executive Summary

The Current Status of the Turkish Economy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urkey

Cheol-Won Lee

The Economic situation in Turkey is gradually reviving thanks to multiple factors such as high-speed growth rate, decrease of interest rate led by currency depreciation, and the slowing down of the inflation rate. However much of the economic reform agenda is still pending including the huge burden of public debt. Red tapes in the bureaucratic system, high commission rate and side costs are regarded as impediments to potential economic growth. In addition, the still growing inflation rate, currency exchange risk, and high interest rate which all result in financial burden, heavy corporation tax, and burdensome electricity cost are hindering Korean firms from entering the Turkish market.

Korean companies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enhancement of the import process for textile products accompanied by strengthened customs inspection. Since Turkey is a member of the customs union with the EU, any form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non-member country should be assessed preliminarily by the EU. Those factors are definitely slowing down the process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iscouraging trade promotion between Korea and Turkey. However, even after considering those negative economic preconditions,

the volume of Korea-Turkey economic trade is far from the expectations based on a 50-year friendship since the Korean War.

Synergy based on mutual complementarity between Korean companies' R&D know-how backed with capital and Turkey's ample labor force especially in high-skilled engineering area is expected to strengthen technology competitiveness and enlarge world market share for both countries. Thus, comprehensive cooperation differing in scope and context, such as strategic partnership and intergovernmental cooperative system should be fostered further.

It is imperative to bolster mutual economic partnership as far as possible, since the Turkish marke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trade deflection in the EU market and serves as a bridgehead to the Middle East market. On the other hand, Turkey could improve its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import of capital and advanced technology from Korea.

In conclusion, from a short-term perspective, technology venture on the corporation level is strongly recommended. In the middle and long-term perspective,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common production system for targeting trade deflection and Middle East market is required. Lastly, automobile, electronics, telecommunication, metallurgy, textile, chemical industry, construction, energy, defense industry, transportation, and agricultural products are the most prospective area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KIEP 발간자료목록(2000~05. 4)

■ 지역리포트

00-01	금융위기 이후 선진기업의 아시아 진출현황과 시사점	朴英鎬
01-01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金恩志
01-02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朴映坤
01-03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鄭厚榮
01-04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朴映坤
01-05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IS 경제통합의 전망	河由貞
02-01	중국 장강삼각주 권역의 투자환경	吳東胤 · 林泓修
02-02	일본 수입축진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金恩志
02-03	EM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과 평가	朴映坤
02-04	러시아 토지소유권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	河由貞
02-05	인도의 정보기술산업 발전현황과 한·인도간 협력방안	崔允靜
02-06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裴嬉娟
02-07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의 배경과 시사점	權耿德
02-08	東아시아의 産業內貿易 增加 推移와 示唆点 - 韓 · 日의 對ASEAN 貿易을 중심으로	朴在旭
03-01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李哲元
03-02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崔義炫 · 趙錫軍 · 禹辰勳
03-03	태국의 FTA정책과 시사점	權耿德
03-04	이라크의 전후복구 동향과 향후 전망	朴馥永 · 裴嬉娟
04-01	南亞共 擘인정권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朴英鎬
04-02	EU 확대 이후 중·동구 지역의 교역 · 투자전망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李哲元
04-03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와 건설시장 확대방안	朴英鎬
04-04	EU의 시장통합과 유럽 자동차산업의 재편	朴映坤
04-05	영국경제의 이해와 韓 · 英 경제협력의 과제	金興鍾 · 金均泰
04-06	일본 · ASEAN FTA 추진 현황과 전망	權耿德 · 金恩志
05-01	터키의 국가 현황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	李哲元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KIEP 발간자료 목록은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 지역연구회시리즈

00-01	블라디미르 푸틴의 시대: 2000년 러시아 대선분석 및 향후 정세전망	鄭銀淑
00-02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에서 韓半島의 통합적 발전방향	吳勇錫
00-03	AFTA-CER간 연계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元容杰
00-04	美國經濟의 最近好況에 있어서 IT와 金融化의 役割	李榮洙 · 徐煥周
00-05	日 · 北 經濟協力의 展開構圖와 韓國의 對應方案	申志鎬
00-06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朴濟勳
00-07	知識基盤經濟의 구축과 情報화 촉진을 위한 EU의 政策方向	蔡熙律
00-08	멕시코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	張善德
00-09	對日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金正湜
00-10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현황과 전망	嚴久鎬
00-1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楊平燮
00-12	印度 經濟改革 10年의 評價와 向後課題	金讚沆
00-13	東北亞 地域 海洋都市間 經濟協力모델 構想	金昌男 · 千寅鎬
00-14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高在模 · 全載旭
00-15	일본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전략과 시사점	辛源龍
00-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尹玄德
00-17	경제전환기 중 · 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李殷九
01-01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金泳世
01-02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朴繁洵
01-03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李忠烈
01-04	일본의 버블붕괴와 잃어버린 10년	姜應善
01-05	미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전망	鄭基虎 · 李滿基
01-06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沈義燮 · 李光勛
01-07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구조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尹澤東
02-01	우리나라와 미국 주식시장 동조화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전망	李忠彦
02-02	1990년대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패턴 변화와 한국의 대응	程勳
02-03	쿠바의 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金鍊鐵
02-04	Municipal Finance in Selected European Transition Economies: Institutional Framework and Regional Development	Chang Woon Nam
03-01	말레이시아의 외환위기와 이슬람 정책	吳明錫
03-02	대만기업의 對중국 투자현황과 전략 - 검토: 대만경제에 대한 영향	趙顯堉 外
04-01	EU의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평가	金恩慶 · 金興鍾
04-02	거시경제적 성과로 본 유럽경제의 효율성 분석	朱尙榮 · 金興鍾
05-01	한 · 일 경제개혁과 경제활성화에 관한 비교분석	李鐘允

01-02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敎
01-03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黃祥仁 · 金寅培 · 辛仁錫
01-04	韓 · 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敎
01-05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金尙謙 · 朴仁元
01-06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역내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曹琮和 · 金于珍
01-07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梁俊哲 · 金鴻律
01-08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尹德龍 · 朴淳讚
01-09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李鍾華 · 朴淳讚
01-10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宋有哲 外
01-11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통신 · 환경 · 에너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金準東 外
01-12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분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에의 시사점	崔洛均 外
01-13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협상에의 시사점	尹昌仁 外
01-14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蔡旭 · 徐暢培
02-01	DDA 총점검-2002	崔洛均 外
02-02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宋有哲 · 朴芝賢 · 李載玉 · 林頌洙
02-03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 · 시청각 · 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金準東 · 高俊誠 · 具文謨 · 朴淳讚
02-04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관세를 구조분석	崔洛均 · 鄭在皓
02-05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姜文盛 · 魯在峯 · 李鍾華
02-06	DDA TRIPS 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尹美京 · 崔允僖
02-07	DDA 무역과 개발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南相烈 · 權栗
02-08	DD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崔洛均 · 朴淳讚
02-09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	姜三模 · 王允鍾
02-10	미국 경상수지적자 확대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姜文盛 · 羅秀燁
02-11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尹德龍 · 鄭在植 · 曹琮和
02-12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의 對中 투자와 일본의 對韓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李彰洙
02-13	한 · 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金良姬 · 趙炳澤
02-14	한국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池晚洙
02-15	ASEAN 주요국의 산업 · 교역구조 분석	權栗 · 金玆慶
02-16	중국 유통산업 개방과 활용전략	趙顯埃

02-17	1990년대 이후 한·미간 무역구조의 변화	梁俊哲·金鴻律
02-18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尹德龍·鄭衡坤·南英淑
02-19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對중동 통상확대 전략	金興鍾
02-20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 - 주요 비즈니스 거점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李昌在
02-21	韓·中·日 IT 산업의 戰略的 提携 현황과 향후 전략: 知識連繫를 중심으로	洪裕洙
02-22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	金鴻律
02-23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현지화에 관한 연구	白權鎬 外
02-24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朴大權·楊斗鏞·吳奎澤·金恩京
02-25	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 - 국제산업연관모델에 의한 실증연구	李鴻培·岡本 信廣
02-26	북한경제 백서	趙明哲 외
03-01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申寬浩·王允鍾·李鍾和
03-02	동아시아 주요국의 적정환율과 시사점	姜三模·朱尙榮
03-03	동아시아 혁신경제의 이행과 한국의 혁신전략	洪裕洙·李彰洙·姜丁實
03-04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安炯徒 外
03-05	중국 부실채권 문제의 원인과 해결전망	地晚洙·李 榮
03-06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	洪裕洙·池晚洙·韓正和
03-07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	鄭仁教·吳東胤
03-08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權 栗·鄭仁教·朴仁元
03-09	일본의 통상정책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FTA 정책을 중심으로	李鴻培·金良姬·金恩志·程 勳
03-10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曹琮和·李炯根
03-11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姜文盛·金元鎬·朴淳讚·全鍾奎·權奇洙·金眞梧·羅秀燁
03-12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安炯徒·尹德龍
03-13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趙明哲 外
03-14	북한경제 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趙明哲 外
03-15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 현황과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趙明哲
03-16	DDA 중간점검 - 2003	崔洛均 外
03-17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宋有哲 外
03-18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金準東·鄭永虎·崔秉浩·安德宣
03-19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이 한국의 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崔洛均·鄭在皓

03-20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姜文盛 · 朴淳讚 · 李彰洙
03-21	WTO경쟁규범 협상: 문제점의 분석과 제정방향의 모색	尹美京
03-22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金準東 · 金鍾一 · 姜俊求
03-23	한 · 중 · 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鄭仁教 外
03-24	한 · 중 · 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姜文盛 · 朴淳讚 · 宋有哲 · 尹美京 · 李根
03-25	한 · 중 · 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楊斗鏞 外
03-26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 · 중 · 일 FTA에의 시사점	申寬浩 · 楊斗鏞 · 王允鍾 · 李鍾和
03-27	한 · 중 · 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 2003년 연구의 주요 결과	鄭仁教 外
04-0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 정책에의 시사점	金元鎬
04-02	한 · 중 · 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李洪植 外
04-03	한 · 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南英淑 外
04-04	한 · 중 · 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方浩慶 外
04-05	WTO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협상방안	崔洛均
04-06	무역 · 투자의 자유화와 지속가능발전: OECD 논의를 중심으로	尹昌仁
04-07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李彰洙
04-08	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	尹美京 · 尹昌仁 · 李相承
04-09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	楊斗鏞 外
04-10	EMU 협상의 정치경제학과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金興鍾 外
04-11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추진전략	鄭仁教 外
04-12	한 · 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朴淳讚 · 姜文盛
04-13	한 · 일 FTA 체결이 국내 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전기전자 및 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李鴻培 外
04-1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池晚洙 外
04-15	최근 북한의 가격 · 유통체제 변화 및 향후 개혁과제: 중국과의 비교연구	洪灑杓 外
04-16	동북아금융허브: 주요국의 자산운용업 현황과 시사점	安炯徒 · 吳龍協
04-17	동북아물류허브: 동북아 항공운송자유화 정책 추진방안	田一秀 · 洪錫晉
04-18	외국인투자 유치: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李相學
04-19	동북아 경제협력: NEADB의 논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李炯根

李哲元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졸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現, E-mail: cwlee@kiep.go.kr)

著書 및 論文

『유로화 출범의 과급효과 및 對EU 통상환경의 변화』(1998)

『중·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2001) 외

지역리포트 05-01

터키의 국가 현황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

2005년 4월 8일 인쇄

2005년 4월 12일 발행

발행인 李景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FAX: 3460-1144

인쇄 서울기획문화사 전화 2272-1533 대표 김규식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6078-8 94320

정가 5,000원

89-322-6017-6 (세트)

The Current Status of the Turkish Economy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urkey

Cheol-Won Lee

한국은 EU시장 우회진출과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터키는 자본 및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양국의 경협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은 상호간 시장개방뿐 아니라 비용을 분담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인접 시장에 공동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 韓·터키 경제협력의 유망부문으로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통신, 이동통신기기, 철강, 섬유, 화학, 건설, 에너지, 방산, 운송, 농산물 등을 들 수 있다. 同 부문에서 양국 기업은 기술제휴, 합작생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제3국 시장 진출을 공동 모색하며, 정부 주도형 기술개발에 공동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178, 1179 FAX: 3460-1144



정가 5,000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의 추구를
뒷받침할 政策研究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7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1992년 1월 地域研究를 주요 업무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현재 30~40명의 박사급 연구진을 포함하여 70여 명의 연구원이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APEC 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여건,
동북아경제협력 및 통일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쳐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國際巨擘金融室, 貿易投資政策室(DDA연구팀, FTA연구팀, APEC연구팀), 세계지
역연구센터(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東北亞경제협력센터,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北京事務所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를 두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유관부처에 제공되며, 장·단기 研究報告書,
월간 『KIEP세계경제』,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새로운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연구성과는 본 연구원 KIEP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ep.go.kr>)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질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대외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정책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院長 李 景 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역곡동 300-4

TEL : 02) 3460-1114 / FAX : 02) 3460-1144, 1199

URL: <http://www.kiep.go.kr>
